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 · 성모성월
제33권 22호(다해) 2013·5·5

[묵상]



겟세마니에서의 고뇌 <안드레아 만테냐 15c, 런던 내셔널갤러리>

떠나시기 전
저희가 걱정스러운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실
보호자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을까봐,
혹은 다르게 왜곡할까봐
제대로 기억하게 해주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떠나가시면
세상의 달콤한 손짓과 온갖 위협에
마음이 산란해지고 겁이 나겠지만
그런 저희들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따르기에 당신과 함께 사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

당신께서는 사랑과 평화로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보호자를 통해 지켜주시겠습니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 김루빈, 신재현 모니카 & 신성호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정윤 요셉, 설준순 마리아, 권복남 모니카, 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김풍길 바오로, 윤희중 & 정진영, 정학순 발바라, 전용선 시메온 & 김중규, 이숙자 루피나 & 홍숙녀 마리아 & 이용완, 박인정 (생) 이윤조 클라라, 안성아, 고정민, 이준용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정진권 요한, 강필규 요셉, 유은상 안젤로, 사도들의 모후 pr. 단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2, 22-29

화답송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21, 10-14, 22-2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요한(John) 14, 23-29 <또는 17, 20-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166	198
봉헌	361	269	264
성체	382	289	287
파견	352	327	32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 18)

교회의 사명: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교적 증거

97). 교회의 사명의 광활한 지평과 오늘날의 복잡한 상황은 하느
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요청
합니다. 모든 복음화의 주역이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활동에서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의 모든 방법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의 전달과 그리
스도교적 증거 사이의 내재적인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포가 신빙성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로써 주님께서 직접 우
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로써 이 말씀이 신빙성을 갖게 하는 것
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아름다운 철학이나 유토피아가
아니라 살 수 있고 또 생명을 주는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
니다. 말씀과 증거 사이의 이러한 상호성은,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의 강생을 통하여 당신을 알려 주신 그 방법을 상기시킵
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현존하도록, 그리고 살아
있도록 하는 증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 닿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는 "성인들의 체험담을 듣고
그들과 깊이 사귀는 일, 친구들의 좋은 감화, 교회 공동체 전체
의 좋은 환경과 적극적인 동반"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알
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성경의 증거
와 신자들의 삶을 통한 증거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
다. 성경의 증거는 신자들의 증거를 내포하고 그것으로 인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증거는 성경에 확인되어 있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한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으로 보이
도록 부름 받은 증거들을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믿을 만한 복
음의 증인들을 만나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
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발휘하는 효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98). 증거와 말씀 사이의 이러한 상호성을 배경으로 우리는 바
오로 6세 교황께서 권고「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말한 것을 이
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에 공통의 가치들을 제
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의 말
씀을 명시적으로 선포하는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 충실한 이들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삶의 증거로 선포된 기쁜 소식은 곧이어 삶 속에서
말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나자렛 예수님의 이
름과 가르침, 그분의 생애와 약속, 그분의 나라와 신비를 선포
하지 않고서는 참된 복음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평화를, 평화를 주소서!

천주교회 입교 동기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거센 세파가 몰아치는 인생 여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물론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온 세상의 평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평화를 선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7)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재력, 권력, 군사력 등을 키워서 다른 이들을 위협,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십니다.(에페 2,14 참조)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참된 평화를 이룩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로 시작되었지만, 왕성한 선교활동 덕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교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어려운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준수해왔던 모세 율법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갈라 3,27-29 참조) 그런데 일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중 몇몇이 안티오

키아 교회에 와서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동하여 물의를 빚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인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서 문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원로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논의를 하였고, 성령의 인도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을 배려하여 이들이 역겨워하는 몇 가지 사항,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리고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원칙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천상 예루살렘’(제2독서)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닙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이미 세상에서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참된 평화를 선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헌신할 때, 그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완고함 때문에 참된 평화가 자리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주님! 평화를, 평화를 주소서.”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56항 참조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송현식 바오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권경아 요세피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남성철 베네딕토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안나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성모 성월

교회는 5월을 성모성월로 선정하여 신자들의 뜻을 모아 기도와 선행에 정진케 하고 있습니다. 엿그제 금요일(3일) 우리들은 성모의 밤을 통해서 '만물의 여왕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미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모님께 특별한 은혜와 전구를 청하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환영식 : 6월9일(주일)
- 교리기간 : 6월13일~12월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본당 전진성사 신청접수 중**

- 일시 : 6월2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교육 : 6월 6,7,8,9일(목 금 토 일) '성령안의 생활세미나'에 의무참석해야함. 6월22일 본당신부님 교육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제10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일시 : 5월19일(주일) 오전 11시~오후5시,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올해부터 청백 구역변경이 있음)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상품 : 우승팀-가족당 스포츠가방, 준우승팀-가족당쌀1포
- 경품 : 김치냉장고(1등), TV(2등), 아이패드 및 전기밥솥, 식사권/가방 등(3등)
- 경품추첨대상 : 추천진행중 참석자로제한, 추천권 당일배포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문화체육분과장 ☎(310)926-2248

◆ **본당 ME 세어링**

- 일시 : 오늘 주일(5) 오후 6시30분, 강당
- 문의 : 대표부부 정 하상바오로 & 올리아 ☎(310)780-9055

- ◆ 2013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회장 : 이재정 사도요한)가 선발하는 2013~14연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로서, 교회봉사를 하며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5월 31일 까지 마감 * 신청서 : 사무실
- 장학금 지급 : 2013년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본당 제4회 구역대항 탁구대회**

- 일시 : 예선 5월12일(주일) 오후 1시30분, 친교장
결승 : 5월19일(주일) 오후1시30분, 강당
- 경기방식 : 4개팀(토서,토남,PV,연합)이 리그전
- 결승전 : 상위2개팀이 체육대회날 경기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문화체육분과장 ☎(310)926-2248

◆ **백삼위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정 : 6월 6일(목)~9일(주일)
-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 영적준비 : 성경읽기(루카복음, 사도행전 19,1-10, 로마서 8장, 코린토1서 11,12-14)와 목주의 9일기도(5월28일~6월5일)
- 신청마감 : 5월26일 * 참가비 : \$30
- 문의 : 장혜원 아녜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명문대학 및 명문미대 진학 세미나('비전21')**

- 일시 : 5월12일(주일) 오후 2시 자모회 모임후 회의실
- 대상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장정진 베로니카 ☎(310)713-7779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5월5일(주일) : 양업회(소고기 국밥 \$3) 점심외에 족발, 빈대떡, 도토리묵무침 등을 판매합니다.
* 주일학교(11학년 김밥)
- 5월12일(어머니날) : 친교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10학년 핫도그 & 나초)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구자운	김영경	김재희	김철민	김현숙
	노찬술	민형기	박상준	박완철	박종렬	박현주
	서해영	성미선	정정현	안재만	오세원	오일순
	유근태	윤선희	윤화경	이명우	이상규	이일랑
	임한나	장영진	조혜정	주대중	최이원	최태훈
	최희숙	홍석인				
합계 : \$2,670						
주일미사헌금: \$2,946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김재희	김철민	김현숙	노찬술
	박상준	박완철	박현주	서해영	성미선	정정현
	안재만	오세원	윤선희	윤화경	이명우	이상규
	이일랑	임한나	조혜정	주대중	최이원	최태훈
	홍석인					
합계 : \$1,55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은총시장 도네이션 '절실합니다.'

- 은총시장 : 6월16일(주일)
- 대상 : 유치원부터 6학년
- 상품이나 물적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고등부(10학년) 견진성사

- 날짜 : 5월18일(토) 오전 10시,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리허설 : 5월10일(금)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 : 5월17일(금) 오후 7시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리 교사 ☎(310)744-5878

◆ 2013-2014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내년부터 주일학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관계로 등록을 서둘러 주세요.
- 1차접수 : 6월16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8일부터 등록비 인상(\$140, \$120, \$10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테미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5월26일 마감, 6월2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5월19일 마감, 5월26일부터 \$25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5월18일 오후 4시
- 장소 : 성삼한인 천주교회
- 강사 :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남가주성령봉사회지도/성삼주임)
- 내용 : 찬미/미사/특강/안수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장
- 주관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K.C.R.M.)

◆ 2013 FIAT장학금 프로그램 신청

- 신청마감 : 5월31일
- 대상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희숙 안젤라 213-272-8393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5/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인간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논의’와 관련하여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 오늘 우리는 제3회 생명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생명 주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인간생명을 임신(수정) 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주교회의가 설정한 인간생명 수호 주일입니다. 인간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살핌으로써 하느님의 선물인 인간생명을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2. 현대의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한편으로는 각종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 건강을 돌볼 책임의식을 고취하기보다 의료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자연스런 죽음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며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상황을 낳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환자의 고유한 질병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균형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합리적 치료’의 원칙(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64항 참조)을 생명 말기의 치료에 관한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스런 죽음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촉함이 없이 “온전한 책임과 존엄성을 지니고 죽음을 받아들이 수 있어야”(「안락사에 관한 선언」)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해 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 단, 유사한 병증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안락사에 관한 선언」)고 가르칩니다.

3. 우리 가톨릭교회는 40년 전부터 줄곧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삭제를 위하여 애써왔고, 3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 호스피스와 가정 간호를 시작하여 병자들과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낙태반대운동은 인간생명의 초기 단계를 보호하는 운동이고, 호스피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과 품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생명의 시작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생명 존중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태아 보호와 호스피스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인들과 정부관계자 모두가 보다 큰 관심과 노

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생명운동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 위원장 장봉훈 주교

-고속도로에서 부활 강의를 듣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오카야마, 돗토리 지구는 참 넓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당으로 지구 사제회의를 갈 때는 4시간이나 차로 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회의 날짜가 모두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보낸다고 쌓였던 피로를 고스란히 새벽 미사의 봉헌물로 바쳐드리고 성당 문을 나선다. 분명 다 바쳐드렸는데, 핸들을 잡기만 하면 왜 이리 졸음이 밀려오는 것일까?

아무튼,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미사 후, 잠시 쉬다가 의자에 앉는다는 것이 그만 다른 신부님들과 출발하기로 한 약속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팍팍 막히고, 최송한 마음에 먼저 출발하시라는 전화를 넣었다. 회의전, 방문하는 성당 자매님들이 정성껏 점심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간에 맞춰 보려고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타기로 했다.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차동업 신부님의 신나는 강의도 듣고, 목주기도도 하면서 쉿쉿 달렸다. 그런데 너무 달렸나? 켜켜한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후방 거울을 보니 빨간 사이렌을 울리면서 누군가 나를 쫓아왔다. ‘어라! 지나오면서 경찰차를 못봤는데, 어디서 나타난 거지?’ 생각하는 사이 경찰차 한 대가 내 옆으로 찰싹 붙어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만나는 일일 것이다. 에누리없는 벌금과 감점의 후폭풍은 그 날 하루, 운전자의 하루를 다운시키기에 충분하다. 나도 그럴 뻔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기도 중이었고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은 분명 은총이었다.

설령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그것은 주님의 은총 속에 일어난 것이다. 보통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망쳐버리기 쉽지만, 오히려 “좀 천천히 가거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근무중인 경찰들을 통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의 마음이 솟아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그날 하루를 보다 주님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의미로 녹여내는 마음의 힘이 곧 부활을 사는 이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환해진다. 그래서 그날의 벌금은 부활강의의 수업비로 기쁘게 납부했고, 또 벌점은 이 강의를 성실히 수료했다는 A+ 점수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기영 안드레아 신부/일본 히로시마 선교